산업통상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12.17.(수) 11:00 < 12.18.(목) 조간 > 배포 2025. 12. 17.(수)

한-EU, 공급망·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

-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,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 -
- 차세대전략대화 신설 후속조치 및 철강·원전·배터리 등 현안 논의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.17(수)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(Denis Redonnet)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였다.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, FTA, 무역구제,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.

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(Maroš Šefčovič)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(12.2) 후속조치로, 당시 합의된 한-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·공급망·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, 기술패권 경쟁 심화,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, 가치 공유국(like-minded country)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. 아울러 한-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,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.

이러한 맥락에서,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·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-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·공급망·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(Strategic Dialogue on trade, supply chains & technology)로 격상한 점을 평가하였다. 동 대화체를 기반으로 한-EU 간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, '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.

이어 우리 측은 철강, 원전,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
○ (철강)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,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.

○ (원전)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(FSR) 조사에 대해,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·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

해 한수원을 선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.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음을 재확인하며,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.

○ (배터리) 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,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. 이에 따라 ▲역내 생산된 전기차(EV)·에너지 저장장치(ESS)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▲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(Energy Intensive Industry Sector)* 포함 검토 ▲지연 중인 「배터리법」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하였다.

* 포함 시 전기요금 환급 등 혜택 제공

○ (CBAM) 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 등 우리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였다.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.

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-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양정식 (044-203-5660)
		담당자	사무관	하정욱 (044-203-566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